세계지방자치동향



지역발전

- (한국) 민관 협력 거버넌스 : 충남 홍성군 홍성통 사례
- (일본) 초연결 사회 구축과 Society5.0 : 스소노시(裾野市)를 사례로
- (일본) 일본 콤팩트 시티 추진 사례로 살펴본 성과와 한계

자치행정

- (오스트리아)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 가족친화 지방자치단체 감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민관 협력 거버넌스 : 충남 홍성군 홍성통 사례

홍성군 협치제도 홍성통 도입배경

- 쇠퇴해가는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전략에는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홍성군은 그중에서도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
  - 풀무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홍동면에서 풀무학교 출신 교사와 졸업생 등이 1990년대부터 오리농법 도입 등 친환경 생태마을 운동 활발히 추진
- 군 차원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홍성의 농업·농촌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출범하여, 유기농업특구 지정,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 추진
- 그러나 추진 분야별 집단의 역량 차이, 그들만의 리그, 영역침범의 문제 등의 이슈가 제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홍성통'이라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임을 조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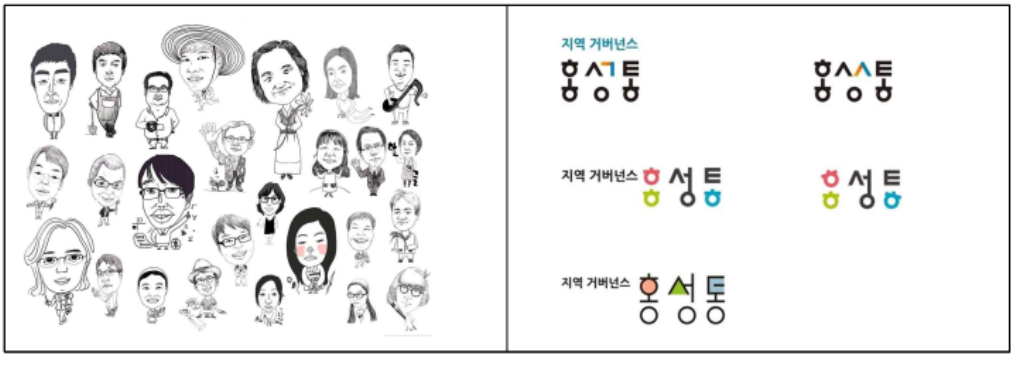
홍성통 구성 및 운영 현황

- 홍성통의 설립 목적은 민관 협업 및 민간네트워킹 활성화, 지역의제 발굴·해소, 연계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역인재 양성,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임
- 운영방향은 민관, 지역과 지방, 주민과 단체를 잇는다는 의미로, 홍성 농촌지역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 행정과 주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서, ① 규정지어지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소통, ② 공유지식을 생성하는 장, ③ 다양한 민관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수행 등으로 정함
- 홍성통의 운영은 합의에 기초하고 운영주체의 파트너십의 크기나 참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촉진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로서 관련 주체들이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의 사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논의
  - 홍성통은 대표 없이 행정 및 민간에 간사 각 1인을 두고 운영

- 관광통, 홍보통, 교육통 3개 분과로 운영되어 오다가, '18년부터 홍보통 대신 청년통이 신규 편성됨.
- 행정부문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민간부문은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가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 12개부서, 마을 및 단체 116개, 재능기부 7개 단체가 참여
- 구성원은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실무자 중심으로 꾸려져 있음

• 발족 초기 존재했던 재능통은 행정의 농촌개발, 농정발전기획단과 민간의 마을활력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구성되었으며, 첫 협력활동으로 '13년 5월부터 '지역의 인재 찾기' 조사를 시작하여 80여명, 7개 단체에 이르는 인재풀을 구성

- 홍성통 로고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재능인 캐리커쳐, 미술교육, 생태조사, 벽화, 디자인, 홍보용 포스터 제작, 정책 자문, 컨설팅 등에 참여하는 등 초기 홍성통 구성과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
- 이후 '16년 2월 분과조정시 교육통 분과로 통합



자료: 홍성군(2018),「2018년 홍성통 운영계획」

| 그림 1 | 재능통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역 인재 캐리커쳐와 홍성통 로고

• 교육통은 행정부문의 평생교육팀 평생학습센터, 농업기술센터 교육정보, 기획단, 정책기획, 식품유통, 민간부문의 홍성희망마을협의회,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역협력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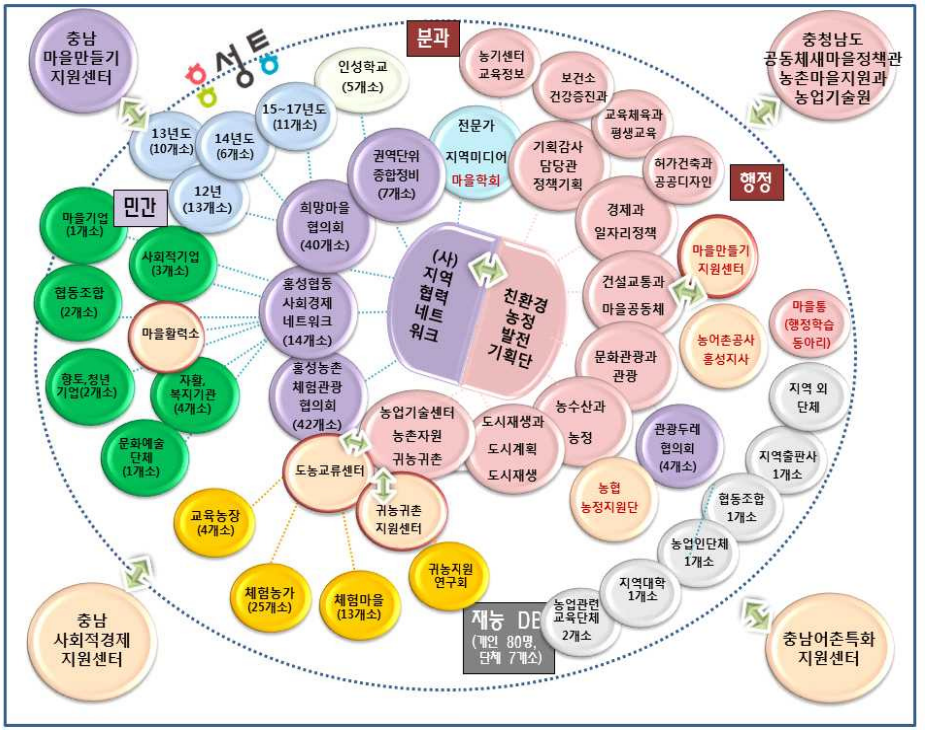
- 주요내용은 교육수요조사 및 DB구축, 공동학습, 교육과정 조정 및 연계임

• 홍보통은 행정의 홍보팀, 공공디자인팀, 기획단, 민간의 재능풀 추천(귀농귀촌, 홍성신문,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디자이너 등)을 통해 구성

- 홍보통은 2014년 귀농귀촌분야에서 홍성군 브랜드 마련을 제안하면서 개설
- 공동학습을 통해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각종 행사에 회원 간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보 공유 채널을 마련해옴
- 2015년 재능통의 인력을 변경하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성군 주요행사 홍보전략 논의(내나라여행박람회 등), 마을 콘텐츠 발굴 및 민관채널 연계방안 마련 논의, '홍성소식', '홍성신문', '홍주신문' 등 기존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소개, 홍성통 페이스북 그룹 페이지 공동운영등을 실행
- 홍보분과 민간위원들은 미디어협동조합 '로컬스토리'를 창업하기도 함

• 관광통은 행정의 관광팀, 농촌자원팀(구 농촌체험팀), 기획단, 농정팀, 민간의 도농교류센터, 관광두레협의회, 마을지원센터, 농협농정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활동

- 관광통의 경우, 행정과 민간 모두 다양한 분야가 연계되어 활동한다는 것이 특징임



자료: 홍성군(2018),「2018년 홍성통 운영계획」

| 그림 2 | 홍성통 참여주체

시사점

- 인구감소 등 고질적인 쇠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느슨한 연대체'를 지향하는 논의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의제를 논의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있음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보다 즉각적으로 논의 가능한 구조를 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방식으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엿보임
- 조직 설립에서부터 홍성통 자체는 협의기구이며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함
  - 의결권 없이 협의만 하는 공적 토론의 장으로서 홍성통이 가진 한계이기도 함

참고문헌

- 김상민·이소영(2018),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성군(2018), 2018년 홍성통 운영계획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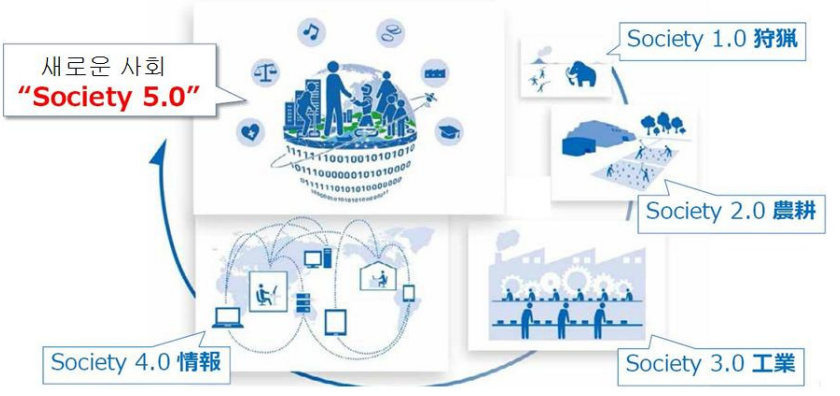
초연결 사회 구축과 Society5.0 : 스소노시(裾野市)를 사례로

개요

- 현재 COVID-19의 감염확대가 진행 중이며 사회의 디지털화가 일층 요구되고 있음
- 토요타 자동차가 초연결 도시의 실험지구를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설치할 것을 발표함. 「Woven City」로 명명하고 2021년 초부터 착공 예정임
-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창조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연계하여 이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차세대 미래도시구상을 발표함
-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인간 중심 사회인 Society5.0 구상과 기업, 지자체가 사회실험을 계획함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Society5.0 구상

- 2016년 12월 22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경제, 사회 및 공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
- 미래산업의 창출과 사회변혁을 위해 미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문화의 함양
-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과 현실공간의 융합을 통한 풍요로움이 제공되는 「슈퍼 스마트 사회」를 미래상으로 공유하며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Society 5.0으로서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 최초로 슈퍼 스마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슈퍼 스마트 사회」란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며,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연령, 성별, 지역, 언어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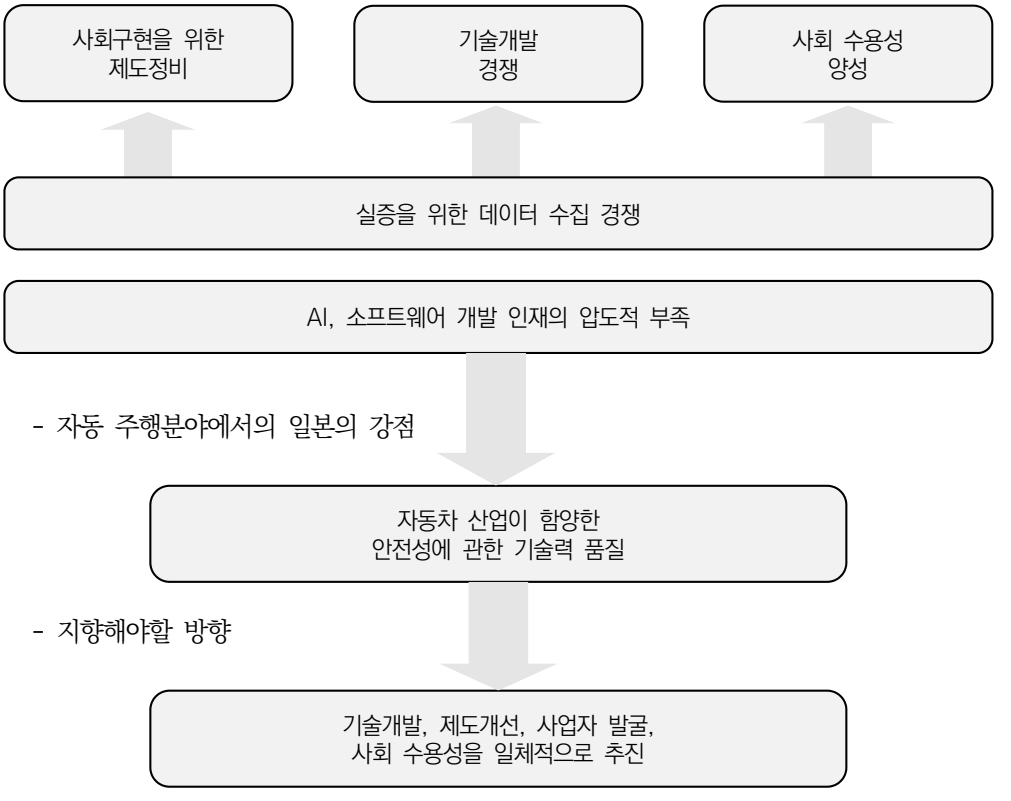
| 그림 1 | Society 5.0의 개념도

- 현실공간에서 센서 및 IoT를 통해 모든 정보를 빅 데이터화 하고 AI가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부가가치를 현실공간에 제공함
- IoT, 로봇,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모든 산업과 사회생활에 도입함

초연결 산업과 초연결 자동차 사회

- 2017년 3월, 독일에서 개최된 정보통신 박람회에서 아베총리, 세코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여 향후 지향할 산업으로서 「Connected Industries」의 개념을 제창함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향해야할 미래 사회인 Society5.0 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사회 문제의 해결이 예상되는 「Connected Industries」을 마련함
- 자동 주행, 제조·로봇. 바이오, 소재, 플랜트·인프라 보안, 스마트 라이프를 중점분야로 선정함
- 2018년 5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동주행 사업 검토위원회 (경제산업성 제조 산업국장·국토 교통성 자동차국장)을 「Connected Industries」자동 주행 분과회로 개칭하여 ① 데이터 수집·활용, ② AI시스템 개발, ③ 인재 확보·육성 등 각 논점에 대해 검토함
- 2018년 6월, 경제산업성은 「Connected Industries」관련 정책의 진척 상황을 검토

- 자동 주행분야에서 일본이 직면한 과제



| 그림 2 | 자동 주행 분과회 진척상황 개념도

- 2017년 7월, Connected Car 사회의 실현을 향한 연구회는Connected Car 사회 실현 로드맵을 제시함
- 2018년부터 구체적인 이용 모델의 상정에 필요한 기술 개발·실증에 돌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계자가 참가 가능한 test bed를 활용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Connected Car를 단순한 자동차의 고도화가 아니라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사업」의 도구로 인식함
- 2020년에는 세계 최첨단의 안전·안심·쾌적한 Connected Car 사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고급의 자동 주행을 실현함

도시OS 와 스소노 디지털 크레이티브 시티 구상

-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능 체계를 종합한 아키텍처를 도시 OS라고 함
  - 도시에 대한 IoT 플랫폼 등을 「도시의 운영 체제 (OS)」 즉, 도시 OS라고도 함
- 일본의 스마트 시티의 실현의 대한 대책으로서 ① 상호 운용성 (연결) ② 데이터 유통 (흐름), ③ 확장의 용이 (지속성)을 도시 OS의 특징으로 설계해야 함
- 토요타 자동차는 2020년 1월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 CES 2020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도 연결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도시Connected City프로젝트의 개요를 발표함
- 2020년 말 폐쇄 예정인 토요타 자동차 동일본 주식회사 동부 후지공장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의 부지를 이용하여 향후 약 70.8 만 m2의 범위에 마을 만들기(Woven City)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초에 착공 할 예정임
- 실제 생활환경 하에서 자동 주행, Mobility as a Service, 개인 Mobility, 로봇, 스마트 홈 기술, AI기술 등을 도입·검증 할 수 있는 실증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임
- 2020년 1월 7일, 스소노시의 타카무라시장은 「도요타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용도변경 절차의 착수에 있어 긍정적으로 반응함



| 그림 3 | 토요타 자동차 동일본 주식회사 동부 후지공장

- 2020년 3월 23일, 스소노시 시의회 전원 협의회의에서 타카무라 시장이 차세대형 미래 도시인 스소노 디지털 크레이티브 시티 구상을 발표함
- 인구 감소·고령화의 진행, 인구 감소의 대응으로서 국토·지역 만들기,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인바운드 관광의 증가와 관광 수요의 변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 등이 스소노 디지털 크레

이티브 시티 구상의 배경임

- 기존의 상식과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는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분야에 미래 기술의 활용을 염두한 새로운 관점에 의한 마을 만들기가 요구됨
- Woven City가 건설됨에 따라 전세계 연구자와 기술자, 기업 등이 모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 구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산업면뿐만 아니라 시찰을 포함한 비즈니스 관광이 활발해져 스소노시에 사람과 기업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Woven City가 중계지 역할을 하여 스소시 뿐만 아니라 주변 지자체와 시즈오카현 내외에 파급효과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Woven City의 발표 후에는 스소노시의 마을 만들기의 전제 조건이 크게 변화할 것임
- 스소노 디지털 크레이티브 시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데이터 연계 기반을 구축해야함
  - 그리고 전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괄적인 메커니즘이 요구됨
  -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의 분야 횡단적인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연계 기반이 필요함
  -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야 횡단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하는 기반 (도시OS) 정비가 필요함
- 스소노 디지털 크레이티브 시티 구상의 기간은 제5차 스소노시 종합 계획, 스소노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스소노시 입지 적정화계획의 기간을 고려하여 2035년까지 대략 15년으로 지정함



| 그림 4 | Woven City의 이미지

시사점

- 현재 COVID-19의 감염확대가 진행 중이며 사회의 디지털화가 일층 요구되고 있음
- 코로나 쇼크로 인한 의식·행동 변화에 따른 과제로서 디지털화·원격화 추진이 거론됨. 따라서 철저한 디지털화의 추진과 디지털 뉴딜의 구현을 강조함
- 중앙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로서의 사회변혁인 Society5.0구상, 사회변화에 따른 산업육성 정책인 「Connected Industries」가 진행됨
- 기업의 사업환경 변화와 지역 경제로의 파급에 따른 새로운 「Woven City」 구상의 발표
- 지자체 역내 기간산업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차세대형 미래도시 구상의 준비
- 스소노시의 사례는 중앙-지방 연계, 산관학 연계의 일면이 관찰됨
  - 한편으로, 기존의 역내 기간산업의 변화, 지자체 내부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구상이 연계되어 저출산 고령화및 산업의 공동화라는 문제해결의 단서를 관찰할 수 있음
  - 즉, 사업체와 지자체의 협력과 창조적 구상의 연계가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유도함

자료출처

- 경제산업성 자동 주행 사업 검토회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connected_industries/automated_driving_and_mobility_service/pdf/20180528_01.pdf
- 경제산업성Connected Industries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connected_industries/index.html
- 내각부 과학기술기본계획https://www8.cao.go.jp/cstp/kihonkeikaku/5honbun.pdf
- 내각부 선택할 미래2.0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future2/gaiyou.pdf
- 내각부 Society 5.0 https://www8.cao.go.jp/cstp/society5_0/society5_0-1.pdf
- 내각부 스마트 시티 참고 아키텍처 백서 https://www8.cao.go.jp/cstp/stmain/a-whitepaper1_200331.pdf
- 시즈오카신문 https://www.at-s.com/news/article/politics/shizuoka/723451.html
- 스소노 디지털 크리에티브 시티 구상
- http://www.city.susono.shizuoka.jp/material/files/group/11/sdcc_word.pdf
- 스소노 시청http://www.city.susono.shizuoka.jp/jigyosha/13802.html
- Open Government Consortium 도시OS분과회 https://ogc.or.jp/article/4406

• Connected Car 사회의 실현을 향한 연구회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01374.pdf
• 토요타 자동차 https://global.toyota/jp/newsroom/corporate/31170943.html
• 토요타 자동차 동일본 주식회사 http://www.toyota-ej.co.jp/company/kyoten.html



배 윤 통신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

일본 콤팩트 시티 추진 사례로 살펴본 성과와 한계

개요

- 급속한 고령화, 지방의 인구 감소, 지구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러 지방 도시에서는 콤팩트 시티가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의 콤팩트 시티의 배경과 정책의 발전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도야마 시, 아오야마 시, 오이타 시의 각 사례를 통해 콤팩트 시티 정책의 성과와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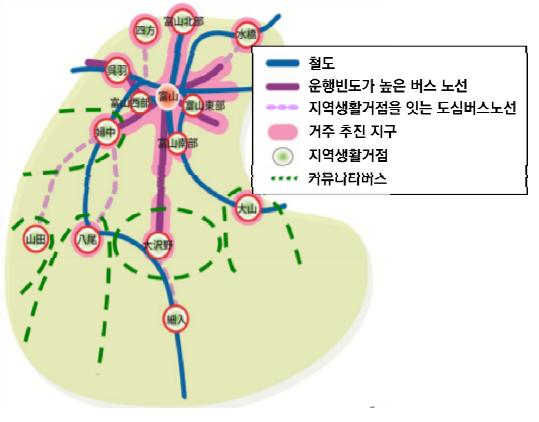
콤팩트 시티의 배경과 정책

- 콤팩트 시티란, 1973년 George B Cantzig와 Thomas Saaty에 의해 처음 제창된 것으로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켜, 도시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임
- 일본에서도 1990년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쇠퇴,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콤팩트 시티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음
- 토지 용도를 규제하는 「개정도시계획법」(1998년 시행), 시가지 정비와 상업 활성화를 일체적으로 도모하는 「중심시가지활성화법」(1998년 시행), 점포의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2000년 시행)의 3가지 시책을 총칭하는 「(구)마을만들기 3법」을 제정하였음
- 「(구)마을만들기 3법」에서는 교외개발규제가 결여되어 있었고, 행정은 중심 시가지의 중소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중심시가지 출점을 강하게 규제하였고 그 결과 규제가 약한 교외로 대규모 소매점이 진출하게 되었음
- 이에 2006년 개정된 「(신)마을만들기 3법」에서는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교외 출점을 규제하고,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인증된 계획에 교부금 및 세금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2018년 12월 기준, 142 지자체, 226 계획이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인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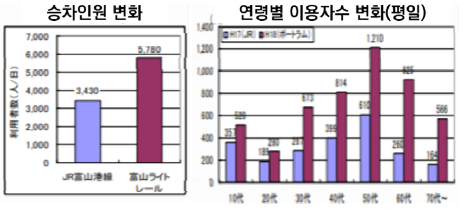
사례 1. 도야마 시 : 성공적인 공공교통 체제 구축

- 도야마시는 교외의 인구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
- 80% 이상이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한 세대당 자가용보유 대수(1.706대/세대, 전국 2위)가 많은 편이고, 도로의 정비율도 높아 공공교통 쇠퇴와 시가지의 저밀도화가 진행되고 있었음
- 도야마시는 '자동차에 의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도보로 이용 가능한 생활권(경단)을 공공교통(꼬챙이)으로 잇는 도시'를 목표로 콤팩트 시티를 구상
- 폐선된 JR선을 라이트 레일(노면전차)로 새롭게 도입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도 편리하게 공공교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이트 레일의 도입으로 이용자 수가 평일은 약 2.1배, 휴일은 약 3.6배 증가하였고, 특히 낮 동안 고령자의 이용이 증가하였음
- 또한 환상선화와 버스노선을 개선하여 공공교통 활성화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도모함
- 자동차 의존 지역이었던 도야마시는 공공교통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여 CO_2 배출을 줄였고, 이에 환경 모델 도시로서 지정되기도 함
- 도심지구와 공공교통 노선 주변 지구의 주택조성제도를 통해 교외의 사람이 중심 시가지로 되돌아오기 시작하는 등 콤팩트 시티로서의 시책은 일정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도야마시의 도시상 (콤팩트 마을만들기)



공공교통 활성화 사례 : 도야마 라이트 레일



도심지구, 공공교통노선 주변지구의 주택조성제도

	시민 지원 (단독주택 등 취득비보조)	사업자 지원 (공동주택건서비보조)
도심지구	50만 엔/가구	100만 엔/가구
공공교통노선 주변지구	30만 엔/가구	70만 엔/가구

| 그림 1 | 공공교통을 축으로 한 거점집중형 콤팩트 마을만들기

사례 2. 아오모리시 : 복합상업시설의 경영난으로 인한 실패

- 아오모리 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구역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화되어 중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
-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시가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이하의 목표를 설정하고, 콤팩트 시티화를 추진함
- 목표 1. 교외 확대로 인한 제설비용의 부담경감을 포함한 행정 비용의 억제
- 목표 2. 신칸센의 정차역이 되는 신 아오모리역과의 교통 강화
- 아오모리 역을 중심으로 'Inner', 'Mid', 'Outer'의 3개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시가지인 'Inner'를 활성화하고, 'Mid'는 주택 구역으로, 'Outer'는 도시화 억제, 자연환경 보호구역으로 계획함
- 2001년, 약 185억 엔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민간 상업시설을 복합화하는 관민 협력 복합상업시설 '아우가(AUGA)'를 건축하여 연간 6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초기에는 유동인구 확대에 이바지하였음
- 하지만, 개점 첫해부터 적자 매출, 임대료 부족 등 경영 악화로 운영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아오모리시가 채무를 매입하였고, 이는 시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콤팩트 시티를 추진한 시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음
- 2017년에는 복합상업시설의 지하상가 부분 이외의 1~4층 상업시설은 모두 폐쇄하였고, 2018년부터 전면 공공용으로 시청사와 도서관이 차례로 이전하였음
- 복합상업시설의 실패는 여전히 아오모리시의 과제로 남아있음

아오야마 시의 구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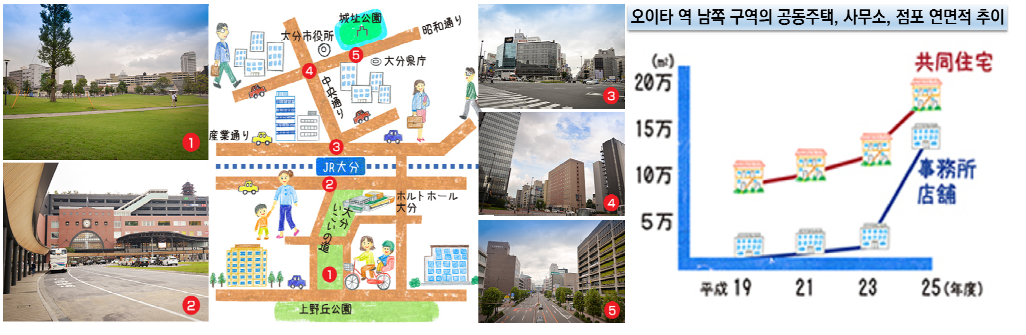
복합상업시설 '아우가 '



| 그림 2 | 아오야마 시의 구역 설정과 복합상업시설

사례 3. 오이타 시 : 역 개발을 통해 실패를 성공으로

- 인구 47만 명(2015년 기준)의 오이타 시는 대규모 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1964년에는 신작업도시로 지정되는 등 공업 도시로 발전해 온 지역임
- 시가지의 교외 확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세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 규모 축소, 공공교통의 축소 등이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콤팩트 시티 계획이 부상하였음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실시한 오이타 시의 콤팩트 시티 계획은 거주 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 외에는 빈 점포율 상승, 주말 보행자량 축소 등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여러 과제가 남아있었음
- 지역을 남북을 분단하고 있던 오이타 역을 고가화하고, 역의 남쪽에 문화시설과 잔디광장(폭 100m, 길이 444m)을 건설하였음
- 2010년 철수한 '오이타 사티(8층, 점포면적 1만 2,800㎡)' 철거지에 '센폴타 빌딩(2층, 점포면적 2,607㎡)'을 개점하여 소규모 지역 상점부터 24시간 민간보육시설, 병원, 학원 등이 입주하여 집객의 상승효과를 불러옴
- 역 주변을 개발한 결과, 역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사무소나 점포의 비율이 높아져 30~40대의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어 콤팩트 시티의 대응으로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됨



| 그림 3 | JR오이타 역 주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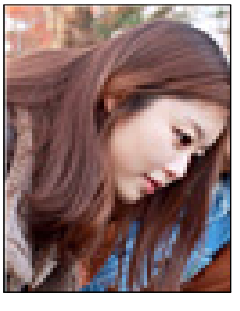
시사점

- 지자체 간 광역적 협의를 통해 인접 도시로의 유동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광역적 수준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야마 시의 경우,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고 공공교통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변 시정촌의 낮은 참여율과 광역적 연계의 부재로 인근 교외의 외곽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콤팩트 시티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음

- 기능을 유도하는 거점 시설의 규모와 개수를 도시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함
- 복합상업시설을 통해 도심 기능을 유도하고자 하였던 아오모리시의 경우, 도시 내부의 다수의 거점, 교외의 쇼핑센터와의 경쟁 속에서 도심 기능이 분산되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였음
- 오이타 시의 사례에서는 문화 상업시설을 집약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하였고, 이는 운영자의 고정자산세 감액, 고용잉여 해소, 건설비 삭감 등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였음
- 이처럼 일본의 콤팩트 시티 정책은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 국내 도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들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야 함

출처

- 미즈호총연논집(2006), 신마을만들기3법으로 중심시가지는 활성화될까
- 도도부현별 자가용 승용차 보급상황(경차 포함), 일반재단법인 자동차검사등록정보협회 (https://www.airia.or.jp/)
- 콤팩트시티전략을 통한 도야마형 도시경영의 구축, 도야마시
- 비즈니스 애리어 특집 Vol.11 오이타현 오이타시 (https://www.key-press.jp/)
- 아무라 후미노리, 권규상(2019), 일본 콤팩트 도시 정책의 한계와 국내 도시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도야마와 아오모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1호
- 櫛引 素夫(2016), コンパクトシティ政策と郊外の空き家問題, 青森大学付属総合研究所紀要
- 亀山駅前再開発を考える③ コンパクトシティの失敗 青森市の駅前再開発, (http://kameyama.jcpweb.net/)
- コンパクトシティとは？成功・失敗の事例とメリットデメリット(https://www.tochikatsuyou.net/)
- 人口減少見据え、規模縮小の再開発カギ 大分市に先例, 2015.2.25., (https://www.sankei.com/)



김지윤 통신원
(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jiyoon-k@iis.u-tokyo.ac.jp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 가족 친화 지방자치단체 감독

개요

-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는 시 정책 상의 프로세스로서 개별 지자체와 행정구역들이 가족 친화 조치를 확립하고 개선하여 *Familyfriendlycommunity*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주재, 감독함
- 전 세대와 분야 간의 결합을 통해 지자체 고유의 문제점들을 발굴, 해결하여 정주 조건을 최적으로 구비함
- 생활공간과 경제 거점으로서의 장점을 지속해서 관리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여 각 지자체에서 젊은 층의 이탈과 이농을 방지하고자 함

배경

-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 지형이므로 일부 농·목축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 간 청년층의 잦은 이농으로 농가 등, 부모의 사업장을 계승하지 못하여 지역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했음
- 종합적이 아닌 부분적인 지역 후원으로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로나 유치원, 학교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산촌에는 노인 외 핵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정착하기 불리했음
- 전 세대가 고루 분포되지 못한 탓에 소외 지자체에 대한 편파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부재하였음
-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경제 거점으로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노동, 복지, 요양과 노인 문제, 관광업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점이 있었음
- 낙후지역이거나 인구 대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적은 지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기구 설치와 목표

-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는 연방 노동 가족 청소년부 주도로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연맹, UNICEF Austria, 검증기관, 오스트리아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설립된 *Familie und Beruf Management GmbH 가족과 직업 메니저먼트 공사*가 수행
- 전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는 지자체를 구축하기 위함
-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 고양함
- *이농 대신 귀농* - 가족 친화 조치를 투입, 어린 아동을 가진 젊은 세대가 이주, 정착하여 생업을 유지하는 데 중점
- 대내외적으로의 지자체 마을 이미지 개선
- 기존의 가족 친화적인 조치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세스 동반자가 코치, 동행
- 공인 검증을 거쳐 "가족친화 지자체 증서" 부여와 중앙정부의 "품질 표시" 수여
- 3년간 중앙정부에서 수여한 품질표시 증과 유럽 전체에서 보호받는 상표인 *familyfriendlycommunity*의 이용권 소유
- 각 지자체 특유의 장점,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컨트롤 기재를 마련하여 수여 맞춤형과 맞춤형 해결책 제시, 추가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
- 타 지자체, 광역시나 주변 행정 구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UNICEF의 추가 자격증인 *Kinderfreundliche Gemeinde*(어린이 친화 지자체)를 결부시킴. 이 경우, 아동의 권리에 맞춘 테마 영역을 추가로 개발
- IKZ, 지자체 상호 간의 공동협력 (*Familyfriendliyregion /Interkommunale Zusammenarbeit*)을 통해 전체 지역을 가족 친화적으로 연계 형성
- 전 지역에서 장기간의 부가가치 상승을 지향하고 시너지 효과를 공유하며 지역 격차를 극복하고 지자체 간의 균형을 이룸
- 중복성을 피하고 관리의 신속, 효율성을 위해 단일 협력소를 설치
- 혁신과 경쟁의 역동성을 살리되 협동에 기반
- 가족 친화 네트워크 형성과 지자체를 초월한 공동 협력, 지역 내 가족 친화 기업과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 사례들을 발굴, 공유

프로세스와 지원

- *Familyfriendlycommunity* 자격에 관심있는 지자체는 *Audit Familyfriendlycommunity* 에 신청 - 참가 계약서 쌍방 서명 – *Audit* 세미나를 통해 감독 프로세스와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자체 의결 - 프로젝트 착수 - 현 상태 파악 - 시민 참여 – 가족 친화 지자체 목표 설정 - 지자체 재차 의결 - 9개월 실시 후 검증 -기초 자격 부여 – 속개 - 3년 후 재차 검증 – 최종 자격을 부여받음
- 자격 취득 조건은 해당 지자체의 아동, 노인, 독신 가정 등, 전 세대를 위한 조치를 분석, 확정, 개선하여 3년 내 목표에 도달할 것임
- 연령별 조치는 임신과 출산, 유아와 가족, 3세까지의 유아기, 유치원 아동기, 학생, 교육기와 돌봄과 노인 단계 등으로 구분하며 해당 분야마다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함
- 주요 테마로는 이농 현상, 실업, 낮은 출생률, 전문인력 결핍과 세대 간의 갈등, 소통 부재 등이 있음
- 프로세스 시작과 함께 안전, 여가, 교육, 시민 참여, 건강 등의 행정 프로그램이 결합하여 가족 친화 조치를 계발함
- 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품질표시 부여
- 무료 정보 행사 서비스를 통해 대민 홍보 서비스와 우수사례 제공, 웹사이트 공개 서비스
- 자격은 3년 유효하며 재차 검증을 통해 연장 가능함

가족 친화 지자체 사례 1
Ausservillgraten 면 (2015년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과 UNICEF 자격 수여):

인구 766명 중 어린이(0~14세) 112명, 청소년(15~24세) 94명
기업 수 20, 요식업소 8, 유치원 1, 학교 1개

- 동기 부여: 끊임없는 이농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 내에 공동, 단독 주택들을 지음. 지자체 특유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합한 조치를 접목, 젊은 가족들을 영입하기 시작, 지자체의 버팀목으로 만듦. 기존 구조에 미래를 위한 형성공간들을 조성
- 조치: 임산부와 육아맘의 조직적 미팅, 공공화장실에 기저귀대 설치, 벼룩시장 개설, 체육관 무료사용, 어린이 의례, 제식 팀 조성, 10세까지 이용 연장된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과외 제공, 응급조치 코스 실시, 소년과 청소년 단체 설립, 재정 후원, 청소년 만남의 장소 설치, 명예직 회원 구축과 강화 등
-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전문 인력 1명씩 지자체마다 파견, 배치



ZERTIFIKAT seit 2015
GEMEINDE AUSSERVILLGRATEN

Kinderfreundliche Gemeinde
Zertifikat seit 2015
unicef Österreich

TIROL

GEMEINDE AUSSERVILLGRATEN

Adresse:	Hnr. 136
PLZ, Ort:	9931 Außervillgraten
Tel.:	+43 (0)4843/5522
E-Mail:	gemeinde@ausservillgraten.gv.at
Webseite:	www.ausservillgraten.tirol.gv.at
Bürgermeister:	Mag. Josef Mair
Projektleitung:	Julius Trojer

DATEN & ZAHLEN

Einwohner/innen:	766
Handels- und Gewerbebetriebe:	20
Gastronomiebetriebe:	8
Kinderbetreuungsstätten:	1
Schulen:	1
Kinder (0-14 Jahre):	112
Jugendliche (15-24 Jahre):	94

MOTIVE FÜR DIE TEILNAHME

Nach mehreren Jahren der konstanten Abwanderung aus unserem Dorf besteht nun wieder Hoffnung auf eine positive Bevölkerungsentwicklung in Außervillgraten. In jüngster Vergangenheit wurden in unserer Gemeinde neben zahlreichen Einfamilienhäusern auch Wohnanlagen errichtet, in denen nun besonders viele junge Familien leben. Exakt diese Familien bilden das Rückgrat unserer Gemeinde und sorgen auch für ein abwechslungsreiches und buntes Dorfleben. Um unseren Familien ein breit gefächertes Angebot an passenden Maßnahmen zu bieten, wurde schließlich der Auditprozess zur Erreichung der besonderen Familienfreundlichkeit angestrebt.

Neben einer bereits bestehenden Struktur wurden einige Maßnahmen umgesetzt, besonders aber die Gestaltung der Zukunft bietet noch viel Gestaltungsspielraum, das Angebot stetig zu erweitern bzw. anzupassen.

FAMILIENFREUNDLICHE MASSNAHMEN

- Organisierte Treffen für Schwangere und Mütter
- Wickeltisch im öffentlichen WC
- Flohmarkt/Tauschbörse
- Gratis-Turnsaalbenützung
- Gründung eines Kinderliturgieteams
- Alterserweiterte Kindergartengruppe bis 10 Jahre
- Nachhilfeangebot für Schüler/innen von Schüler/innen
- Gründung einer Jungschargruppe
- Erste-Hilfe-Kurs im Ort
- Finanzielle Zuwendung bei Sportaktivitäten
- Treffpunkt für Jugendliche
- Bürgerservice der Gemeinde
- Aufbau bzw. Stärkung des Ehrenamtes

출처: https://gemeindebund.at/website2016/wp-content/uploads/2018/12/booklet-ffg_2018.pdf

가족 친화 지자체 사례 2
Hallwang 면 (2007년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과 UNICEF 자격 수여):

주민 수 4,200명 중 어린이(0~14세) 600명, 청소년(15~24세) 515명

기업과 사업장 461개소, 요식업 9, 유치원 1, 학교 1

- 동기 부여: 지자체 주민이 일치단결하여 수미일관한 조치를 실행. 무수한 프로젝트와 행사을 통해 활발한 마을 생활과 고도의 수준을 제시함
- 조치: 새 놀이터 조사, 새 주민을 위한 브로슈어 발행, 어린이를 위한 응급조치 코스 실시. M-Preis(슈퍼마켓 명) 버스 정류소의 지붕 건설, 공공 기저귀 대 설치, 유치원 확장과 탁아소 도입
-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전문 인력 1명씩 지자체마다 파견, 배치



ZERTIFIKAT seit 2007
GEMEINDE HALLWANG

Kinderfreundliche Gemeinde
Zertifikat seit 2018
unicef Österreich

SALZBURG

GEMEINDE HALLWANG

Adresse:	Dorfstraße 45
PLZ, Ort:	5300 Hallwang
Tel.:	+43 (0)662/661957
E-Mail:	office@hallwang.salzburg.at
Webseite:	www.hallwang.at
Bürgermeister:	Mag. Johannes Ebner
Projektleitung:	Ing. Andrea & Ing. Thomas Renezeder

DATEN & ZAHLEN

Einwohner/innen:	4.200
Handels- und Gewerbebetriebe:	461
Gastronomiebetriebe:	9
Kinderbetreuungsstätten:	1
Schulen:	1
Kinder (0-14 Jahre):	600
Jugendliche (15-24 Jahre):	515

MOTIVE FÜR DIE TEILNAHME

Die Gemeinde Hallwang setzt bereits seit Jahren eine Vielzahl an Maßnahmen um und ist somit für Familien besonders lebenswert. Der Zusammenhalt innerhalb der Gemeinde ist sehr stark und wird durch vielerlei Projekte und Veranstaltungen, sowie das rege Vereinsleben bestätigt. Das Audit macht diese Familienfreundlichkeit sichtbar und fördert diese auf hohem Niveau. Für die Projektleitung ist die Teilnahme eine willkommene Gelegenheit, sich ehrenamtlich in der Gemeinde einzubringen. Das Engagement erfolgt dabei unabhängig aber gemeinsam mit Bürgerinnen und Bürgern und allen bestehenden Institutionen. Die gemeinsame Projektleitung ist die Arbeit von einer Familie für Familien.

FAMILIENFREUNDLICHE MASSNAHMEN

- Evaluierung neuer Spielplatz
- Neubürger – Broschüre
- Erste-Hilfe-Kurs für Kinder
- Überdachung M-Preis Bushaltestelle
- Öffentlicher Wickeltisch für Mütter und Väter
- Erweiterung Kindergarten und Einführung Krabbelgruppe

출처: https://gemeindebund.at/website2016/wp-content/uploads/2018/12/booklet-ffg_2018.pdf

결과

- 2019 현재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530여 개 지자체가 가입, 자격 취득
- 2500만명의 시군민들이 가족 친화 조치에서 도출된 혜택을 누림
- 젊은 가족의 이농 대신 정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족 친화 네트워크가 형성됨
- 각 지자체의 상호 협동이 전체 지역에서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 이웃 지자체와 행정구역과의 교류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균형을 조성
- 국제적으로는 UNICEF 어린이 친화 지자체와 연계함. 2019년 11월 20일, 독일 쾰른에서 개최한 제1회 *UNICEF-Initiative Child Friendly Cities*에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 공유, 국제도시 간 교류 심화
- 전 국토가 관광지라는 장점을 이용, 유럽 내에서 보호받는 품질 표시인 *Familyfriendlycommunity* 자격 취득은 대외 가족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도 탁월한 기여



Zertifikat *familienfreundlichegemeinde*

출처: https://www.familieundberuf.at/sites/familieundberuf.at/files/anhang/2020_oeffentlichkeitsarbeit_familienfreundlichegemeindeneu.pdf



Anbringung der Ortstafel - Beispiel Gemeinde Stattegg (Stmk)

출처: https://www.familieundberuf.at/sites/familieundberuf.at/files/anhang/2020_oeffentlichkeitsarbeit_familienfreundlichegemeindeneu.pdf

시사점

- 이농을 막고 이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에는 노동력과 구매력 제공 효과
- 가족 친화 지자체 자격은 지자체 자체 생산품이나 서비스, 광고, 웹사이트, 모든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있어 경쟁력 상승과 주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일익

출처

- Audit *Familienfreundlichegemeinde/Familyfriendlycommunity*
- https://www.familieundberuf.at/sites/familieundberuf.at/files/event/2019/107010/festbroschuere_2019.pdf
- https://gemeindebund.at/website2016/wp-content/uploads/2018/12/booklet-ffg_2018.pdf
- www.unternehmen-fuer-familien.at



김정원 통신원
(오스트리아 법정 통·번역공증인)
kimvienna@hotmail.com